

'몽연-서동의 꽃' 6개월 간 여정 마쳐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브랜드 상설공연... 폐막 앞두고 수능생 위한 특별 이벤트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이하 브랜드공연) '몽연-서동의 꽃'이 오는 25일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고 전했다.

이 작품은 전라북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개발한 브랜드공연으로, 올해 판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을 선보였다.

'몽연-서동의 꽃'은 삼국시대 백제 서동(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기반으로 동서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전북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공연을 본 한 관객은 "부모님과 여름휴가로 전주 여행을 했는데, 전주만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공연을 관람했다"며 "아무런 사전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몽연-서동의 꽃' 폐막을 앞두고 수능생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보 없이 단지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 방문했는데, 공연 퀄리티가 너무 좋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준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즐거운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폐막을 앞두고 수능생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스무 살! 나의 첫 공연!'이라는 이벤트로 수험표를 지참할 경우, 무료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0, 7493~6)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박물관미술관협

대구서 워크숍 진행

(사)전북박물관미술관협회(회장 박현수)는 지난 13~14일 이틀간 대구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내 박물관·미술관에 재직하는 관장 및 학예연구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에는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대학박물관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 사례와 대학생 및 지역민이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통해 전라북도 박물관·미술관에서 지역민에 대한 더 많은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남궁현 학예연구사는 대구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골목투어를 진행하면서 투어의 역사적 의미 및 배경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둘째 날에는 대구 동화사에 대한 문화유산 소개 및 현재의 발전과정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박현수 회장은 "2024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관련해 박물관·미술관이 보다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느꼈다"며 "도내 박물관·미술관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사)한국미술협회 고창지부가 주관하는 '제2회 고창세대공감예술인전'이 오는 26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린다. 사진은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원로작가와 청년작가와의 만남

'제2회 고창 세대공감 예술인전' 26일까지 고창문화전당서

'제2회 고창세대공감예술인전' 전시가 오는 26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사)한국미술협회 고창지부(지부장 권애란)가 주관하고 고창군이 후원한다.

이현곤 작가와 박옥태 작가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작품들로 지역 문화 예술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원로작가와 청년작가의 만남이란 주제로 작년부터 열린 고창세대공감 예술인전은 올해로 2회째를 맞고 있다. 노년작가와 청년작가가 만나 서로를 이해해 보는 시간으로,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며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고 지역과 연계한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미술인들의 관심과 반응이 뜨겁다.

이현곤 작가는 '나무에 비친 그림자'라는 주제로 서예, 문인화, 나무공예 작품 등을 선보이며, 박옥태 작가는 '달항아리'라는 주제로 많은 도예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애써주시는 이현곤 작가님과 박옥태 작가님, 그리고 권애란 고창미술협회 지부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품격있는 작품들로 고창군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서 이번 전시회가 군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좋은 성과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봉분조차 헤일 수 없는 문엄'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내년 3월 말까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 추모사건전

군산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하 역사관)은 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공동기획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 추모사건전 '봉분조차 헤일 수 없는 문엄'을 내년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와 공동기획한 전시로 100년 전 발생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과정을 담은 사진자료와 일본 내 조선인 위령비를 촬영 기록한 천승환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자연재해에서 제노사이드로'는 지난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지방에 발생한 규모 7.9의 대지진의 참상과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조선인 학살의 만행을 사진을 통해 알아본다.

2부 '봉분조차 헤일 수 없는 문엄'에서는 천승환 작가가 2017년부터 일본 현지에서 촬영한 조선인 희생자 위령비 35기를 주제별로 만날 수 있다.

3부 '체험존'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주제로 한 책과 주제 카드를 통해 전시 내용을 되새길 수 있게 한다.

역사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100년 전 발생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다시금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은 앞으로도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저항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역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일상생활 속 친환경 인식 개선 확산

전북문화관광재단, 임실 관촌서 제5차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1일 임실 관촌면체육문화센터에서 제5차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전북도가 주최하고 (사)전북자원봉사센터와 임실군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해 지역 내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부스 운영과 더불어 식사 나눔, 문화공연 활동으로 추진됐다.

재단에 따르면 이윤주 교육문화팀장을 비롯한 12명이 환경 친화적 문화예술교육 체험활동을 통해 현장을 방문한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와 일상생활 속 친환경 인식 개선의 확산에 이바지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기관 및 기업의 인적 재능과 물적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식사 나눔과 다양한 볼거리의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재단 참여자는 "지난 사회공헌활동에서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프로그램을 임실에서도 진행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내년에도



재단 특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재단의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상생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모습이 감사하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최고의 문화관광재단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종단 형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